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비교연구

김 현 숙¹⁾ · 원 종 순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는 건강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의료환경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건강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다. 이어 의약분업,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는 자연스럽게 서비스 산업으로 불려지고 서비스의 결과는 상품, 환자는 소비자로 명명되고 있다.

이제까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난해성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나 이제 의료 소비자들은 의료서비스 수혜 여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를 기대한 만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선진 의료산업과 겨루어 세계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의 주체이며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지닌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병원경영 전략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질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은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강조되어온 전인 간호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전인간호란 개인의 신체적, 정서 심리적, 사회 경제적 측면은 물론 영적인 측면의 요구까지 고려한 모든 간호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Bratton, 1961) 각 환자에게는 고유한 요구가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 간호학자 Abdellah는 간호를 환자의 요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방법이라 정의하고 환자중심의 간호방침이 아니면 간호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의 요구중심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Abdellah, Beland, Martin & Mathency, 1960). 따라서 요구 사정은 전인간호를 추구하는 간호의 주요 관심사이며 질적인 간호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Blank, Clark, Longman & Atwood, 1989). 결국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간호사의 책임이다(Kwon & Eun, 1998).

그러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 소비자인 환자와 제공자인 간호사 사이에는 지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과 의료전문인인 간호사간에는 간호서비스에 대해 가지는 기대 및 중요도에 대해 달리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키는 위험요인이 된다(Lee, 2000). 실제로 소비자와 제공자가 각기 다른 기준과 준거를 가지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평가해 왔다는 증거로 환자에 의한 간호요구나 서비스 만족도와 전문인이 평가하는 간호서비스가 각기 따로 연구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Lee, 2001, 2003). 서비스의 선택은 결국 소비자가 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제공자간의 지각 차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의료 전문인이라는 우월적 견지에서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기보다는 소비자인 환자가 어떤 간호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간호요구에 대해 간호사와 환자간에 얼마만한 인식의 차이가

주요어 : 입원, 간호서비스, 요구사정

1) 서울보건대학 조교수, 2) 서울보건대학 부교수(교신처자 E-mail: jswon@sh.ac.kr)

투고일: 2004년 11월 25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20일

있는지를 앞으로써 보다 환자 중심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요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80년대 이전까지는 입원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거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Jeon, 1983; Choi, 1987) 1990년대 이후에는 질병상황을 세분하여 간호요구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암환자(Kwon & Eun, 1998; Yang, 1997; Choi, Park & Ryu, 1999; Bae, Koo, Lee & Kim, 2001), 두부손상 환자(Cho & Park, 1999), AIDS환자(Gong et al., 1998), 골수이식 환자(Choi, 2000), 초기 산욕부(Yoo & Lee, 1999), 응급실 환자(Han, 2001), 노인환자(Kim, 2002), 정형외과 환자(Jung, 2003) 등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입원환자의 요구도 조사에서부터 퇴원 후 가정간호 요구에 대한 조사(Kim, 1993; Kwon & Eun, 1998; Han, Park, Hah, Yun & Song, 1994)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대상자, 다양한 상황으로 확대되어 연구되어 왔다.

90년대 이후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지닌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병원경영 전략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대상자의 간호요구도 파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어 왔으며(Kim, 2002; Kim, 2003; Seo, 2000; Won & Kim, 2002; Yang, 2002) 특히 간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화 제공자간에 지각 차이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2000년대에 들어 인식 차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간호서비스의 질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으나(Lee, 2000, 2001, 2003)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자 만족도 증진과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입원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를 비교하여 인식 차이를 조사하는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입원환자가 지각하는 간호요구도와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요구도를 조사, 비교 분석하여 그 일치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 만족도와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입원환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한다.
-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한다.
- 입원환자와 간호사간의 간호요구도를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내 1개 종합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용어 정의

- 간호요구도 : 입원환자의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 및 안녕상태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간호요구를 뜻하며(Henderson, 1966), 입원시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간호요구정도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간호요구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치료적, 정서적, 교육적, 경제사회적 간호요구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700병상 규모의 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임의표집하여 선정하였다.

• 입원환자

연구대상 병원의 일반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자로서 국문해독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235부의 질문지를 배포한 후 194부가 회수되어 82.5%의 회수율을 보였다. 단 13세 이하의 소아과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 간호사

연구대상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병동 간호사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사 189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183부가 회수되어 96.8%의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02년 2월 29일부터 3월 26일(27일간)에 걸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병동 간호사가 연구대상자를 임의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간호사에게는 2002년 2월 19일부터 2월 26일(7일간)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문헌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1차 설문지를 가지고 일반병동에 입원한 신경외과 환자 2인, 소아과 환자 1인을 개별 면담하여 1차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는 2

단계의 과정을 걸쳐 최종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간호요구도에 대한 설문지는 신체적 간호요구 10문항, 치료적 간호요구 10문항, 정서적 간호요구 9문항, 교육적 간호요구 5문항, 경제사회적 간호요구 1문항으로 5개 영역의 총 35개 문항의 4점 척도 Likert Scale로 구성되었다. 1점 “전혀 원하지 않음”, 2점 “별로 원하지 않음”, 3점 “비교적 원함”, 4점 “매우 원함”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사회적 간호요구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는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대해 1, 2, 3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여 간호요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간호요구도를 조사하는 1차 연구(Won & Kim, 2002)를 실시한 후 환자와 간호사와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입원환자 대상의 1차 연구 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값이 .940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9610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9124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항별 간호요구도 분석을 위해 빈도수,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환자, 간호사가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에 1, 2, 3순위를 표시한 것은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1순위는 1점으로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환자와 간호사 간의 간호요구도 비교를 위해서는 t-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환자 194명, 간호사 183명으로 총 377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환자와 간호사 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환자

전체 대상자 194명의 평균연령은 42.8±17.3세로 30대(24.5%)가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22.4%) 60대 이상(20.2%)순이었다. 여자(62.3%)가 남자(37.3%)보다 많았으며 기혼(71.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상(54%)이 가장 많고 다음이 대졸이상(24.1%)이었다.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1.8%로 대부분이었으며 이번 입원이 최초의 입원경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2.0%이었고, 두 번째 입원인 경우가

40.0%, 세 번째 입원인 경우가 15.0%, 그 이상의 입원 경험을 가진 사람이 11.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57.8%는 입원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였고, 27.2%는 그저 그렇다, 4.4%는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입원병동의 분포는 내과 14.0%, 외과 55.0%, 기타 31.0%이었다. 입원 일수는 3일 이내인 경우가 16.6%, 4-7일 36.7%, 8-14일 20.1%, 15일 이상 26.6%이었다. 사용병실 수준은 1-2인용이 13.4%, 3-5인용 42.8%, 6-8인용 43.8%이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63.4%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 간호사

간호사 183명의 평균연령은 25.8±3.7세로 25세 이하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59.7%)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20대 후반(28.2%), 30대이상(12.1%)은 적은 분포였다. 99.5%의 간호사가 여자이었으며 대부분(84.5%)이 미혼이었다. 근무경력은 1년 이하(25.7%)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1년-2년 이하, 2년-3년 이하 순이었으며 3년 이하가 전체 간호사 중 64.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위는 평간호사가 대부분(89.5%)이었고 학력은 92.8%가 전문대졸이었으며 89.6%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입원경험이 없는 간호사(67.4%)가 입원경험이 있는 간호사(32.6%) 보다 많았으며 가족의 입원 경험은 대부분(89.5%)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요구도

환자가 응답한 간호요구도는 4점 만점에 총 평균 3.32(±.45)이었고, 간호사가 응답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 3.39(±.27)로 간호사의 총 평균이 전반적으로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96, p=.051$)<Table 1>.

5개 영역별로 구분한 간호요구도(신체적, 치료적, 정서적, 교육적, 경제적 간호요구)에서는 정서적 간호요구만이 환자(영역 평균 3.16±.47)와 간호사(영역 평균 3.31±.34)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50, p=.001$). 치료적 간호요구 영역이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3.53±.46, 3.60±.30), 그 다음이 교육적 간호요구(3.44±.50, 3.46±.38)이었다. 환자는 경제적 영역(3.25±.72), 신체적 영역(3.21±.57), 그리고 정서적 영역(3.16±.47) 순으로 정서적 영역이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인 반면에 간호사는 정서적(3.31±.34), 신체적(3.25±.34), 경제적 영역(3.16±.64)순으로 경제적 간호요구 영역이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Table 1>.

35개 문항 중 환자의 간호요구도 평균치가 높은 문항은 “31. 내가 받을 검사의 목적과 방법, 검사결과 등을 잘 설명해 주길 원한다”(3.68±.49), “19. 담당간호사가 나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담당의사에게 보고해 주길 원한다”(3.65±.55), “10.

<Table 1> Comparison of nursing care need between patients and nurses

Nursing care need	Patient	Nurse	t(p)
	mean(SD)	mean(SD)	
total	3.32 (.45)	3.39 (.27)	1.96 (.051)
physical	3.21 (.57)	3.25 (.34)	0.92 (.361)
therapeutic	3.53 (.57)	3.60 (.57)	1.93 (.054)
emotional	3.16 (.47)	3.31 (.34)	3.50 (.001)**
educational	3.44 (.50)	3.46 (.38)	.50 (.617)
socioeconomic	3.25 (.72)	3.16 (.64)	-1.32 (.187)

* p<0.05, ** p<0.01

병원에서 내 몸에 다른 균이 옮지 않도록 보호해 주길 원한다”(3.65±.59), “6.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물어보고 즉시 해결해 주길 원한다”(3.61±.67), “13. 담당간호사가 나에게 필요한 처치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3.60±.62) 등이었다. 반대로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낮은 평균치를 보인 문항은 정서적 영역의 문항들로 “29. 종교나 믿음에 맞추어 기도하도록 도와주길 원한다”(2.53±.87), “25. 병으로 인한 나의 불안감이나 슬픔에 대해 격려나 위로를 제공해 주길 원한다”(2.91±.75), “22. 입원생활 중에도 나의 사생활을 지켜주길 원한다”(2.91±.76) 등이었다. 반면에 간호사는 간호요구도가 높은 문항으로 “13. 담당간호사가 나에게 필요한 처치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3.91±.27), “6.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물어보고 즉시 해결해 주길 원한다”(3.85±.42), “15. 나에게 주사나 검사를 아프지 않게 잘 해 주길 원한다”(3.84±.37), “18. 주치의의 지시나 검사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3.75±.45), “23. 간호사가

나의 불편감이나 요청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길 원한다”(3.74±.44)라고 응답하였다. 간호사들에게서 간호요구도가 낮은 문항으로는 정서적 영역의 “29. 종교나 믿음에 맞추어 기도하도록 도와주길 원한다”(2.54±.68)와 신체적 영역의 “3. 내가 식사를 맛있게 잘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2.90±.58) 및 “5. 내가 소대변을 잘 보는지 확인해 주길 원한다”(2.94±.60) 등이었다.

● 신체적 간호요구도

환자의 신체적 간호요구도 총 평균은 3.21(±.57)이었고, 간호사의 총 평균은 3.25(±.34)로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0개의 세부문항 중 5개 문항에서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개 문항(“10. 병원에서 내 몸에 다른 균이 옮지 않도록 보호해 주길 원한다”)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신체적 간호요구 영역에서 문항의 우선순위는 “6.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물어보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길 원한다”, “10. 병원에서 내 몸에 다른 균이 옮지 않도록 보호해 주길 원한다”, “2. 환자복과 침구류를 깨끗이 정리하고 교환해주길 원한다” 순이었으며, 이러한 순서는 환자와 간호사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료적 간호요구도

환자의 치료적 간호요구도 총 평균은 3.53(±.46)이었고, 간호사의 총 평균은 3.60(±.30)으로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0개의 세부문항 중 4개 문항에서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개 문항(“20. 의사 진찰시 간호사가 함께 있어서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불편감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길 원한다”)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Table 2> Physical nursing care need

No	Item	Patient		Nurse		t(p)
		mean(SD)	priority	mean(SD)	priority	
1.	to help my body keep clean	3.08(.86)		3.23(.52)		2.01(.046)*
2.	to keep linen clean	3.46(.70)	3	3.63(.48)	3	2.80(.005)**
3.	to be interested my appetite and eating	2.97(.84)		2.90(.60)		-.90(.369)
4.	to be interested my digestive function (body weight change)	3.04(.79)		3.03(.56)		-.13(.900)
5.	to confirm my elimination	2.98(.83)		2.93(.60)		-.60(.549)
6.	to ask my pain and treat it immediately	3.62(.66)	1	3.84(.44)	1	3.77(.000)***
7.	to help my physical mobility	3.11(.80)		3.32(.58)		2.85(.005)**
8.	to make me comfortable and good position in bed	3.02(.85)		3.04(.68)		.29(.775)
9.	to help me take a sleep	3.03(.81)		3.18(.62)		2.02(.044)*
10.	to prevent me from hospital infection	3.64(.61)	2	3.42(.63)	2	-3.53(.000)***

* p<0.05, ** p<0.01, *** p<0.001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치료적 간호요구 영역에서 문항의 우선순위는 환자에게서는 “13. 담당간호사가 나에게 필요한 처치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 “18. 담당간호사가 주치의의 지시나 검사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 “16. 치료나 검사 또는 간호를 하고 나서 내 몸의 상태변화를 잘 관찰 해 주길 원한다” 순이었다. 그러나 간호사에게서는 “13. 담당간호사가 나에게 필요한 처치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 “15. 나에게 주사나 검사를 아프지 않게 잘 해주길 원한다”, “18. 담당간호사가 주치의의 지시나 검사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 주길 원한다”로 우선순위가 환자가 인지한 것과는 달랐다.

● 정서적 간호요구도

환자의 정서적 간호요구도 총 평균은 3.16(±.47)이었고, 간

호사의 총 평균은 3.31(±.34)로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3.50, p=.001). 9개의 세부문항 중 5개 문항에서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개 문항(“27. 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간호사가 자신감과 용기를 주길 원한다”)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정서적 간호요구 영역에서 문항의 우선순위는 “23. 간호사가 나의 불편감이나 요청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길 원한다”, “24. 간호사가 나의 현재 질병상태나 증상에 대해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28. 간호사가 나에게 항상 미소로 대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간호해 주길 원한다”순으로 환자와 간호사가 동일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적 간호요구도

<Table 3> Therapeutic nursing care need

No	Item	Patient		Nurse		t(p)
		mean(SD)	priority	mean(SD)	priority	
11.	to deliver right medication timely	3.51(.60)		3.70(.47)		3.31(.001)**
12.	to check vital signs correctly	3.46(.64)		3.38(.55)		-1.29(.199)
13.	to take a treatment what I want immediately	3.60(.61)	1	3.91(.28)	1	6.36(.000)***
14.	to cooperate and give me best nursing care	3.48(.63)		3.51(.52)		-.58(.563)
15.	to inject skillfully with no pain	3.51(.60)		3.84(.37)	2	6.42(.000)***
16.	to monitor my health condition after medical and nursing treatment and test	3.49(.61)	3	3.58(.52)	4	1.54(.125)
17.	to know my disease progress and prevent my health problem	3.48(.64)		3.49(.50)		.31(.759)
18.	to perform correctly and rapidly physician's order	3.59(.62)	2	3.75(.45)	3	2.86(.005)**
19.	to observe and report my health condition to doctor	3.65(.55)	4	3.66(.49)	5	.26(.798)
20.	to know my health condition and assist my doctor to do medical examination	3.38(.66)	5	3.24(.63)		-2.10(.036)*

* p<0.05, ** p<0.01, *** p<0.001

<Table 4> Emotional nursing care need

No	Item	Patient		Nurse		t(p)
		mean(SD)	priority	mean(SD)	priority	
21.	to accept my psycho-emotional change due to disease	3.17(.70)		3.27(.55)		1.53(.128)
22.	to keep my privacy during admission	2.91(.78)		3.34(.55)		6.10(.000)***
23.	to take care sensitively my discomfort and answer rapidly my demand	3.44(.60)	1	3.74(.44)	1	5.55(.000)***
24.	to be interested in my condition and present illness and need	3.37(.61)	2	3.64(.49)	2	4.69(.000)***
25.	to support and encourage me to get over anxiety about disease	2.92(.75)		3.14(.53)		3.30(.001)**
26.	to respect my right to make a decide the treatment and test	3.22(.68)		3.30(.57)		1.21(.229)
27.	to encourage me to get over disease	3.27(.69)		3.12(.58)		-2.27(.024)*
28.	to face me with smile and take care with pleasure	3.46(.60)	3	3.66(.49)	3	3.49(.001)**
29.	to help me pray to God in accordance with my belief	2.54(.87)		2.55(.70)		.16(.871)

* p<0.05, ** p<0.01, *** p<0.001

환자의 교육적 간호요구도 총 평균은 3.44(±.50)이었고, 간호사의 총 평균은 3.46(±.38)으로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5개의 세부문항 중 “30. 병실구조나 시설물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병원생활에 대해 안내해 주길 원한다” 문항에서는 간호사의 간호요구도가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2. 나의 병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길 원한다” 문항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교육적 간호요구 영역에서 문항의 우선순위를 열거한 결과는 환자의 경우 “31. 내가 받을 검사의 목적과 방법, 검사결과 등을 잘 설명해 주길 원한다”, “32. 나의 병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길 원한다”, “34. 퇴원시 나와 나의 가족에게 집에서 생활할 때 식사, 운동, 투약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길 원한다” 순이었다. 반면에 간호사는 31번, 34번, 32번 순으로 환자의 간호요구 우선순위와 같지 않았다.

● 경제사회적 간호요구도

환자의 경제사회적 간호요구도는 3.25(±.72)이었고, 간호사는 3.16(±.64)으로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가 간호사보다 간호요구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6>.

논 의

본 연구는 환자중심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간호사와 환자간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각각의 간호요구 수준과 둘 간의 일치 정도를 파악해보았다.

환자의 간호요구도(평균 3.32)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평균 3.39)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간호수혜자와 간호제공자 간에 간호요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와 유사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Jeon(1983) 및 Yang(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결과에서는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요구도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Choi, 1987)도 있고, 반대로 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요구도가 환자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연구들(Yang, 1997; Bae 2000; Lee, 2001; Kim, 2002; Kim, 2003)도 있어서 추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영역별 간호요구도에서 본 연구는 다른 영역들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적 간호요구만이 환자(평균 3.16)와 간호사(평균 3.31)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와 암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요구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호스피스환자를 대상으로 한 Bae(2000)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환자보다 간호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간호사가 환자에 비해 간호요구도를 더 높게 지각한 이전 연구결과들은 간호사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며, 간호사들이 환자보다는 모든 면에서 간호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Lee, 2001).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인식한 정서적 간호요구

<Table 5> Educational nursing care need

No	Item	Patient		Nurse		t(p)
		mean(SD)	priority	mean(SD)	priority	
30.	to give me ward orientation in detail	2.95(.74)		3.22(.55)		3.95(.000)***
31.	to explain the purposes, methods and results of treatment and test	3.66(.53)	1	3.71(.47)	1	.89(.377)
32.	to explain me what's my disease and how to control and get over it	3.59(.60)	2	3.45(.58)	3	-2.45(.015)*
33.	to explain my family members what's my disease and what do they do for me to get over it	3.44(.68)		3.40(.54)		-.68(.495)
34.	to explain me and my family members home care after discharge	3.55(.65)	3	3.55(.55)	2	.04(.971)

* p<0.05, ** p<0.01, *** p<0.001

<Table 6> Socioeconomic nursing care need

No	Item	Patient	Nurse	t(p)
		mean(SD)	mean(SD)	
35.	to give me information about the financial support and professional counseling	3.25(.72)	3.16(.64)	-1.32(.187)

가 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다른 영역의 간호요구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환자보다 평균치가 높은 것은 간호사들이 환자보다 모든 면에서 간호서비스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환자와 간호사가 지각한 영역별 간호요구도 평균치를 비교해보면 환자는 치료적, 교육적, 경제사회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순으로 정서적 영역이 가장 낮은 반면, 간호사는 치료적, 교육적, 정서적, 신체적, 경제사회적 순이어서 영역별 순서는 동일하지 않았다. 특히 치료적 및 교육적 요구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높은 간호요구를 보였는데 정서적, 신체적, 경제사회적 영역은 둘 간에 차이를 보였다. Choi(1987)의 연구에서도 치료적 영역이 환자와 간호사에게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간호요구도는 서로 다른 순서를 보였다. 즉, 간호사는 정서적, 신체적, 교육적 간호요구 순이었고, 환자는 교육적, 정서적, 신체적 간호요구 순이었다. 암환자 어머니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치료적 영역은 환자 어머니와 간호사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고, 사회심리적, 신체적, 교육적, 환경적 영역에서는 간호사와 환자 어머니 간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에서는 환자는 교육적, 치료적, 사회심리, 신체적, 환경적 순이었고, 간호사는 환경적, 사회심리, 신체적, 치료적, 교육적 순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Bae(2000)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사회적 영역 순이었고, 환자는 정서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영역 순이었다. 이것은 비교적 단기간 급성적 질환으로 일반병동에 입원한 대상자와 뇌졸중 또는 호스피스 환자 간에 간호요구도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일반 입원환자(Seo, 2000), 종합병원 입원 노인환자(Kim, 2002) 및 정형외과 수술환자(Jung, 2003)를 대상으로 영역별 간호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치료적, 교육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역 순이었다. 치료적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은 대상자가 치료적 간호중재 영역이 간호사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행하여진다고 생각하며 또한 치료적 간호중재 영역에 많은 기대와 의지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Seo, 2000).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본 바, 간호사는 환자의 입원 환경의 특성과 질병특성에 따라 간호요구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고 개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간호요구 영역을 파악하여 충족시켜줌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5개 문항 중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높은 요구도를 보인 문항은 “31. 검사의 목적과 방법, 검사결과 등을 잘 설명해 주길 원한다”, “19. 상태를 잘 관찰하여 담당의사에게 보고해 주길 원한다”, “13. 필요한 처치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행

해 주길 원한다”, “6.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물어보고 즉시 해결해 주길 원한다”이었다. 즉 검사관련 설명, 상태관찰 및 보고, 신속한 처치, 안위간호 등은 간호사와 환자 간에 별다른 지각차이가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1987)의 연구에서도 ‘검사에 대한 설명’이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였고, Yang(2002)과 Jung(2003)의 연구에서도 질병에 대한 설명, 통증을 적절히 조치 등의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Seo(2002)는 입원 환자 가족의 간호요구도와 만족도 조사에서 환자 가족의 간호요구도 상위문항 중에 ‘질병에 대한 설명’, ‘검사 이유와 결과 설명’, ‘약물투여 이유와 효과 설명’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료와 간호행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현재의 질병 상태 및 질병 경과, 검사나 치료의 목적을 사전에 설명하고 후속 결과를 적절한 수준에서 알려주는 활동을 간호의 일상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간호사와 환자간 간호요구도에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도 있었는데 “10. 병원에서 내 몸에 다른 균이 옮지 않도록 보호해 주길 원한다”, “20. 의사 진찰시 간호사가 함께 있어서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불편감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길 원한다”, “27. 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간호사가 자신감과 용기를 주길 원한다”, “32. 나의 병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병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길 원한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간호사보다 환자에게서 간호요구도가 높았다. Kim(2002)의 연구에서도 ‘처치시 철저한 소독법’이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구였으나 간호사에게는 다른 요구보다 낮았다. 병원감염예방, 치료진간의 협조, 질병극복을 위한 자신감과 용기주기 등의 문항은 환자와 간호사간 지각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으로 간호사가 업무 중에 쉽게 간과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간호를 제공하여 환자가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별로 간호요구도의 절대 점수를 파악하고, 아울러 각 영역 안에서 여러 문항 중 상대적으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우선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영역별 문항별로 간호요구도 평균치가 높은 순서와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35개 문항에 대한 각각의 간호요구도 평가와 영역별로 제시된 여러 문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는 개인의 인식기준이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신체적 간호요구는 환자(평균 3.21)와 간호사(평균 3.25)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둘 다에서 5개 영역 중 그리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이지 않았다. Choi(1987)의 연구에서도 환자의 신체적 간호요구도(평균 3.10)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평균 3.16) 간에 간호사의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Kim(2002)의 연구와 암환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에서는 환자와 간호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간호사가 더 높게 간호요구를 인지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특성상 신체적 간호에 대해 간호사가 더욱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3. 식사를 맛있게 잘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길 원한다" 및 "5. 소대변을 잘 보는지 확인해 주길 원한다"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서 낮은 간호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Choi(1987)와 Kim(2002)의 연구결과와도 같으며 환자나 간호사 모두가 신체적인 기본육구 충족 부분을 보호자나 간병인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간호실정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치료적 간호요구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 가장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인 영역으로 환자의 간호요구도(평균 3.53)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평균 3.6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둘 간의 간호요구도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Choi(1987)와 Yang(2002)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Kim(2002)과 Kim(2003)의 연구에서는 환자와 간호사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간호사가 더 높게 치료적 간호요구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뇌졸중과 암이라는 환자의 질병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분항 중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문항은 "20. 의사 진찰시 간호사가 함께 있어서 나의 상태를 이해하고, 불편감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길 원한다"이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원하는 반면,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적 역할에 대해 필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환자의 간호 만족도 측면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간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서적 간호요구는 환자에게서는 가장 낮은 간호요구를 나타낸 영역으로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둘 간에 서로 간호요구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Choi(1987)와 Yang(2002)의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Kim(2002)과 Kim(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사가 환자보다도 정서적 간호요구를 높게 인지하는 것은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정서적 간호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음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플 때 정서적 지지의 주체가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와 환자 모두 정서적 간호요구 영역 중 경청(23번 문항), 관심(24번 문항), 친절(28번 문항)과 관련된 문항이 중요도 순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격려나 위로(25번 문항), 이해(21번 문항), 영

적 지지(29번 문항) 등은 매우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영적 지지에 대해서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에게서 간호요구도가 낮았는데 이전의 연구(Bae, 2000; Kim, 2002; Seo, 2002; Kim, 2003)에서도 종교적 지지에 대한 문항이 가장 평균치가 낮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자나 간호사 모두가 중요한 간호요구로 기대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사생활 보호는 환자에게서 낮은 간호요구도를 보였으나 간호사에게서는 그렇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Kim(2002)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사는 사생활 보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환자는 병원에 오면 사생활이 지켜지는 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아닌가 사료된다.

교육적 간호요구는 치료적 요구 다음으로 환자와 간호사에게 높은 간호요구를 가진 영역이었다.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어 간호요구가 일치됨을 알 수 있었다.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Yang(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연구들(Choi, 1987; Kim, 2002; Kim 2003)에서는 간호사보다 환자의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Kim(2002)과 Kim(2003)의 연구는 대상자가 뇌졸중 및 암환자라는 질병의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며, Choi(1987)의 연구는 교육적 영역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사의 지각이 낮았던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사료된다. 과거보다는 최근 들어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한 환자교육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교육적 간호요구 내용으로 간호사는 병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퇴원교육에 더 비중을 둔 반면, 환자는 병에 대한 설명, 검사에 대한 설명, 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간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교육을 실시할 때 환자의 관심사항을 살펴가며 다양하고 적절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적시에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사회적 간호요구는 환자와 간호사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환자가 간호사보다 간호요구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Bae(200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가 환자보다 높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경제사회적 간호요구를 다루지 않아 이러한 차이점이 일반병동 입원 환자와 호스피스 환자라는 대상자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앞으로 경제사회적 간호요구에 대해 간호사의 관심이 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환자중심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차적으로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하는 각각의 간호요구 수준과 둘 간의 간호요구도 일치정도를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194명과 동 병원 간호사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결과 환자가 인지한 총 간호요구도보다 간호사가 인지한 총 간호요구도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환자와 간호사간 총 간호요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간호요구영역에서 치료적 간호요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적 요구가 높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서적 간호요구는 환자보다 간호사가 유의하게 더 높게 인식하였다. 문항별 비교시 안위간호, 신속한 간호 및 처치수행, 질병관련 전반적 상태관찰, 검사 및 질병과 관련된 교육제공 등이 환자 및 간호사 모두에게 간호요구도가 높게 인지된 문항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어서 둘 간에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환자와 간호사 모두 치료적 간호요구와 교육적 간호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요구도가 더 높은 문항의 내용으로는 교차감염에 대한 주의, 의사와 간호사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환자 돌보기,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등으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간호사의 배려가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병상규모가 다른 병원에서 환자 및 간호사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대별, 특정 질병별로 환자 및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환자 및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뿐 아니라 간호수행도 인식에 대해서 같이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Abdellah F. G., Beland, I. L., Martin, A., & Matheney, R. V. (1960). *Patient Centered Approach to Nursing*. New York: Macmillan.

Bae, Y. R. (2000). *The degree of clinical nurses' perception of hospice care and their performance and the degree of hospice patients'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Bae, Y. R., Koo, H. K., Lee, Y. J., & Kim, H. L. (2001).

The effects of educational program for anti-cancer chemotherapy on the patients' needs and satisfactions about nursing activities. *Clinic Nurs Res.*, 7(1), 61-75.

Blank, J. J., Clark, L., Longman, A. J., & Atwood, J. R. (1989). Perceived home care needs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Cancer Nursing*, 2(2), 78-84.

Bratton, J. K.(1961). A defini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Nursing Outlook*, 9(2), 481-483.

Cho, G. Y., & Park, H. S. (1999). A study on needs of the families of head injury pati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6(3), 414-433.

Choi, K. O. (1987). *The study on the degree of correspondence of degree of nursing needs between the patient and the nurse at admi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Choi, K. S., Park, K. S., & Ryu, E. J. (1999). The needs of patients with cancer and family members in inpatient and outpatient settings. *Korean J Rehab Nurs*, 2(2). 215-224.

Choi, S. E. (2000). Learning needs in patients undergoing bone marrow transplantation. *J Korean Acad Nurs.*, 30(2), 514-525.

Gong, H. J., Kang, H. S., Lim, E. J., Jung, H. Y., Ko, H. K., Seo, H. Y., Kang, M. H., Lee, S. J., Kim, Y. J., & Ha, M. K. (1998). A study on nursing requirements of AIDS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Clinic Nurs Res*, 3(2), 119-140.

Han, K. A. (2001). *Nursing care need and satisfaction of patients nursing car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an, K. J., Park, S. A., Hah, Y. S., Yun, S. N., & Song, M. S. (1994). A survey on home health care needs in Youn-Cheon county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4(3), 484-498.

Henderson, V. (1966). *The nature of nursing*. New York: The Macmillan Co.

Jeon, M. S. (1983). *Congruence between nurses' and patients' perceptions of patients need during hospit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Jung, J. Y. (2003). *A study on the patient need and nursing care satisfaction of orthopaedic patients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im, E. K. (2002). *Nursing need and satisfaction among elderly patients in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onsei University, Seoul.

Kim, H. J. (2003). *Difference in perception of nursing service between mothers of children with cancer and pediatric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im, M. H. (1993). Post discharge nursing needs of patients with open heart surgery. *J Korean Acad Nur*, 23(4), 664-677.

Kim, M. S. (2002). *A Comparison between perception of*

- patient and nurse on nursing need of admission patients (stroke patient and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Kwon, I. S., & Eun, Y. (1998). Nurse's perception in the homecare needs of cancer patient. *J Korean Acad Nurs*, 28(3), 602-615.
- Lee, M. A. (2000).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 between consumers and providers about nursing service quality, and the usefulness of tools measuring nursing service quality. *J Korean Acad Nurs*, 30(5), 1121-1132.
- Lee, M. A. (2001). A study of the perception gap on nursing between consumers and providers. *J Korean Acad Nurs*, 31(5), 871-884.
- Lee, M. A. (2003). A study of the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consumers and providers, and the tool that measures nursing service. *J Korean Acad Nurs*, 33(6), 772-783.
- Seo, B. H. (2000). *A study on the degree of need and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of patients admitted in a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Seo, J. Y. (2002). Nursing need and satisfaction of families with their hospitalized children. *Korean J Child Health Nurs*, 8(2), 195-203.
- Won, J. S., & Kim, H. S. (2002).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of the admitted patients in a hospital. *Annual Bulletin of the Bum-Suk Academic Scholarship Foundation*, 6, 101-110.
- Yang, E. J. (2002). *A comparison of contentment and its importance in nurse service which both patients and nurses can fe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Yang, Y. H. (1997). The comparison of the perceived needs between patients with cancer, their caregivers, and nurses according to the cancer patient's phases of illness. *J Korean Acad Nur*, 27(4), 787-795.
- Yoo, Y. J., & Lee, E. T. (1999).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s of early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5(3), 389-409.

Comparison of Nursing Needs as Perceived by Admitted Patients and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Kim, Hyun Sook¹⁾ · Won, Jong Soon²⁾

1) Assistant Professor, Seoul Health College, 2) Associate Professor, Seoul Health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the perceived nursing needs as reported by admitted patients and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94 patients and 183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in Seoul. The instruments were constructed based on a prior study review and revised after a pilot study with 3 patients. The questionnaire for nursing needs included questions on physical, therapeutic, emotional, educational and socioeconomic domain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February 29 and March 26 for patients and between February 19 and 26, 2002 for nurs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and t-test.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 1. The total score for perceived nursing needs by nurses was higher than that reported by patients except for socioeconomic need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and nurses only in the emotional domain ($t=3.50$, $p=.001$). 3. The highest score was for therapeutic needs and the next was for educational needs. 4. Relatively higher scored items were for comfort care, prevention of nosocomial infections, immediate treatment, monitoring health condition, kindness, and explanation of tests and treatments. **Conclusion:** Nurses generally understand patients' nursing needs but have to be more interested in patients' needs in order to prevent nosocomial infections, to provide care 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doctors and to encourage the patients.

Key words : Hospitalization, Nursing service, Needs assessment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Won, Jong Soon
Seoul Health College
212, Yangji-dong,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13, Korea
Tel: +82-31-740-7202 Fax: +82-31-740-7359 E-mail: jswon@sh.ac.kr